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및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련성에 대한 융복합 연구

최동원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A Convergence Study on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in Nursing Students

Dongwon Choi
College of Nursing, Incheon Catholic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및 전문직자아개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융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상은 I지역과 K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221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PASW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은 사회적 성숙도 및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2.505$). 전공만족도($\beta=.179$), 간호직 의미($\beta=.274$), 사회적 성숙도($\beta=.118$), 자기주도성($\beta=.211$)이 모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4%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증진을 위해 사회적 성숙도와 자기주도성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및 사회적 향상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 간호대학생, 사회적 성숙, 자기주도학습,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maturity(SM), Self-directed learning(SDL)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SCPN), and influencing factors of SCPN of nursing students.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21 nursing students in two universit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sed with PASW 22.0. Study findings revealed that SCPN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M and SDL. Major satisfaction($\beta=.179$), Meaning on nursing($\beta=.274$), SM($\beta=.118$) and SDL($\beta=.211$) about SCPN were significant predictive variables. This variables accounted for 34.4% of the variance in SCPN.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s SM and SDL for increasing positive SCPN.

•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Self-concept of professional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은 특정 분야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 그리고 일정한 실무의 준비과정을 포함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배출된 오늘날 간호사들은 스스

*Corresponding Author : 최동원(dionia@iccu.ac.kr)

Received July 19, 2017

Accepted October 20, 2017

Revised September 14, 2017

Published October 28, 2017

로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1].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에 대해 형성하는 이미지인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로서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느낌과 견해를 말하며, 전문직 신념이 바탕이 된다[1].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존감, 자신감 및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의 향상과, 직무만족, 조직몰입 등 간호의 생산성을 상승시키는 요인이고, 공식적인 학교교육과정과 실무에서 간호교육자나 간호지도자 및 간호사들의 사고와 행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성숙하게 된다[2,3,4,5]. 즉 간호지도자가 스스로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가지고 좋은 역할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사 개인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6,7]. 특히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대학생의 간호교육과정 완수와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임상실습 만족도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다[5,8].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확립이 중요하다.

사회적 성숙이란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인 사회성을 형성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으로, 사회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행동이 내재화 된 것을 말한다[9, 10]. 사회적 성숙은 청소년기 동안에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사회적 성숙도가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남을 존중하며 이해와 욕구가 충돌하게 되면 상호양보하거나 타협할 줄 알고, 타인을 해롭게 하지 않으며, 이웃과 화목과 조화를 도모하는 성향을 가지므로[11] 다양한 대상자와 접하게 되는 간호사에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학업 스트레스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친구들과의 새로운 대인관계, 취업경쟁 등 여러 상황에 지속적으로 놓여있는 반면, 사회적 성숙의 기회는 부족하여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복잡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11,12,13]. 간호대학생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적 성숙과 함께 간호교육에 입문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성이 형성되고 성숙하게 된다[14].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를 갖게 되고 결국 간호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게 될 수 있다.

높은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는 간호직은 예측할 수 없는 업무 내 변화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

해 이론 또는 실무지식 뿐 아니라 리더십과 같은 역량 등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15]. 이렇듯 전문성이 높은 간호사를 요구하는 현실에서 간호대학생은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업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6].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을 계획하여 실행하고 평가하기까지 학습의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활동이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임상실습만족도 및 임상수행능력 등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7,18].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기주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부재는 물론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자기주도성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과도한 학업량과 임상실습의 부담감으로 주도적 학습보다는 나오되지 않기 위해 힘겹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많은 간호대학생의 현실이고[13], 이는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회적 성숙과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은 전문직 자아개념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 이미지, 임상실습만족도, 비판적 사고,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역할갈등과 함께 관련 변인으로서 측정되었을 뿐[4,6,19,20,21],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고, 특히 사회적 성숙도와 자기주도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 정도 및 자기주도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 성숙도와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및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간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즉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필요한 간호교육을 계획할 때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융복합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성숙도, 학습 관련 자기주도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한다.
- 나.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전문직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다.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관계를 규명하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이루어 졌으며 I시와 C시에 위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기 전과 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가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고 설문조사는 총 20분이 소요되었다. 대상자수는 221명으로 G*Power 3.1.2 프로그램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유의수준 $\alpha=0.05$, 검정력 80%, 효과크기 .15로 85명이 산출되어 연구에 필요한 최소의 대상자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사회적 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서봉연과 황상민[22]이 개발한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심리검사지(Social Maturity Test)를 재편성하여 박미란과 김혁근[10]이 사용한 “사회적 성숙성”을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에 관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에서 자신감 8문항, 사교성 10문항, 대인관계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미란과 김혁근[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0.89$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0.80$ 이었다.

2.3.2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Guglielmino[23]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검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 도구를 김지자 등[24]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40개 문항으로 학습에착 7문항, 학습자적 신념 6문항, 미래지향 4문항, 독창성 9문항, 탐구적 특성 4문항, 자발적 계획성 6문항, 학습에 대한 책임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지자 등[2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3$,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92$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Arthur[2]가 개발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도구(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Instrument: PSCNI)를 송경애와 노춘희[3]가 번역한 것을 서원희[25]가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송경애와 노춘희[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0.85$ 였고 서원희[2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7$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0.84$ 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성숙도, 자기주도성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나.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성숙도, 자기주도성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Bonferroni test를 실시하였다.

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라. 각 변수들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세~29세가 139명(62.9%)이었고, 89.1%가 여학생이었다. 종교가 있는 학생은 50.7%이었고, 1학년이 38%, 3학년이 28.1%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적성과 흥미 때문이 38.9%로 가장 높았고 취업(28.5%), 주변 권유(19.5%) 순이었고, 전공 만족도는

40.7%가 '만족 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62.0%가 대인관계가 좋다고 답하였다. <Table 1>.

3.2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는 5점 만점에 2.92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사회성 영역이 3.5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대인관계 순이었다. 자기주도성은 평균 3.69점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미래지향 영역이 3.80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자적 신념, 학습에 대한 책임, 자발적 계획과 학습애착, 독창성, 탐구성 순이었다.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평균 3.06점이었고, 하위 영역인 전문직 실무, 만족도, 의사소통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Table 2>.

<Table 1> Comparison of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N=221)

Characteristics		n(%)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Female	197(89.1)	2.92±0.72	-.437 (.662)	3.71±0.66	-.986 (.325)	3.07±0.54	-.755 (.451)
	Male	24(10.9)	2.85±0.85		3.56±0.83		2.98±0.48	
Age(yr)	<20 ^a	71(32.1)	2.82±0.68	1.011 (.366)	3.69±0.68	2.534 (.082)	3.14±0.49	7.637 (.001)
	20~29 ^b	139(62.9)	2.95±0.77		3.66±0.68		2.97±0.54	
	≥30 ^c	11(5.0)	3.09±0.66		4.14±0.55		6.55±0.35	
Religion	Yes	112(50.7)	2.97±0.77	-1.084 (.279)	3.67±0.71	.768 (.443)	3.07±0.52	-.414 (.679)
	No	108(48.9)	2.87±0.07		3.73±0.65		3.04±0.55	
Grade	1st ^a	84(38.0)	2.88±0.68	.188 (.904)	3.74±0.69	1.298 (.276)	3.19±0.47	3.738 (.012)
	2nd	42(19.0)	2.92±0.76		3.81±0.73		3.01±0.49	
	3rd ^b	62(28.1)	2.97±0.71		3.64±0.61		2.90±0.56	
	4th	33(14.9)	2.92±0.89		3.53±0.72		3.06±0.60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Aptitude & interest ^a	86(38.9)	3.02±0.77	.921 (.468)	3.73±0.64	1.494 (.193)	3.26±0.51	6.183 (.000)
	Inducement ^b	43(19.5)	2.89±0.77		3.52±0.68		2.95±0.56	
	Employment ^c	63(28.5)	2.83±0.71		3.79±0.71		2.87±0.51	
	Along to grade ^d	9(4.1)	2.67±0.66		3.39±0.78		2.72±0.51	
	Service for society	15(6.8)	2.80±0.62		3.60±0.71		3.03±0.58	
Others	5(2.3)	3.20±0.45	4.0±0.61	3.40±0.42	a>b, a>c, a>d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a	90(40.7)	3.11±0.76	5.614 (.004)	3.94±0.65	12.808 (.000)	3.29±0.44	6.949 (.000)
	Moderate ^b	113(51.1)	2.79±0.66		3.57±0.62		2.97±0.48	
	Unsatisfied ^c	18(8.1)	2.72±0.88		3.25±0.81		2.39±0.56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37(62.0)	3.01±0.76	3.646 (.028)	3.77±0.68	2.627 (.075)	3.09±0.52	1.970 (.142)
	Commonness	80(36.2)	2.78±0.67		3.59±0.62		3.01±0.53	
	Not good	4(1.8)	2.38±0.48		3.25±1.50		2.63±0.95	
Meaning on nursing	Very meaningful ^a	99(44.8)	3.06±0.76	6.211 (.002)	3.78±0.71	4.644 (.011)	3.30±0.46	28.632 (.000)
	Moderate ^b	115(52.0)	2.82±0.70		3.67±0.62		2.90±0.49	
	Meaningless ^c	7(3.2)	2.29±0.27		3.0±0.91		2.09±0.39	

a,b,c,d Bonferroni's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2>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N=221)

Variables	Mean(SD)	Range (Min-Max)
Social maturity	2.92(0.74)	1.00-4.50
confidence	3.15(0.29)	2.25-4.00
sociality	3.57(0.59)	1.69-3.94
Interpersonal relationship	3.11(0.66)	1.14-4.86
Self-directed learning	3.69(0.68)	1.50-5.00
Passion for learning	3.53(0.58)	1.43-5.00
Learner beliefs	3.76(0.53)	2.33-5.00
Future orientation	3.80(0.60)	2.00-5.00
Creative approach	3.53(0.53)	2.22-5.00
Exploring characteristics	3.03(0.61)	1.00-4.50
Voluntary planning	3.58(0.57)	1.67-5.00
Responsibility for learning	3.73(0.54)	2.00-5.00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3.06(0.53)	1.50-4.00
professional practice	2.85(0.39)	1.69-3.94
satisfaction	2.89(0.57)	1.14-4.14
communication	2.89(0.48)	1.75-4.00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사회적 성숙도, 자기주도성, 전문직 자아개념

대상자의 사회적 성숙도는 전공에 만족하는 군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군보다(F=5.61, p=.004), 간호직이 의미 있다고 한 군이 의미 없다고 응답한 군보다 높았다(F=6.21, p=.002)<Table 1>.

자기주도성은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F=12.81, p=.000), 간호직이 의미 있다고 한 군이 의미 없다고 응답한 군보다 높았다(F=4.64, p=.000)<Table 1>.

전문직 자아개념은 20대와 30세 이상 군이 20세 미만 군보다(F=7.64, p=.001), 3학년이 1학년보다(F=3.74,

p=.012), 적성에 맞춰 전공을 선택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F=6.18, p=.000),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F=6.95, p=.000), 간호직이 의미 있다고 한 군이 의미 없다고 한 군보다 높았다(F=28.63, p=.000)<Table 1>.

3.4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년(r=.159, p=.009), 전공선택동기(r=.191, p=.005), 전공만족도(r=.462, p=.000), 간호직 의미(r=.488, p=.000), 사회적 성숙도(r=.274, p=.000), 자기주도성(r=.346, p=.000)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 성숙도와 자기주도성은 모두 전공만족도 및 간호직 의미와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3.5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기 위하여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Durbin-Watson값이 1.930로 나타나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차한계(tolerance)는 .656~.938로 0~1 사이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66~1.525으로 10보다 크지 않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2.505, p=.000), 전공만족도(β=.179, t=3.066, p=.002), 간호직 의미(β=.274, t=4.238, p=.000), 사회적 성숙도(β=.118, t=2.052, p=.041), 자기주도성(β=.211, t=3.555, p=.000)이 모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4.4%이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 among social maturity, self-directed learning,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other variables. (N=221)

Variables	Age(yr)	Grade	MCN	MS	MN	SM	SDL	PSCN
Age(yr)	1							
Grade	.356**	1						
MCN	.067	.109	1					
MS	.054	.188**	.231**	1				
MN	.063	.262**	.136*	.231**	1			
SM	.097	.188**	-.084	.209**	.225**	1		
SDL	.085	-.108	.003	.324**	.160*	.199**	1	
PSCN	.033	.015	.191**	.462***	.452***	.274***	.346***	1

*p <0.05, **p <0.01, ***p <0.001

MCN: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MS: Major satisfaction, MN: Meaning on nursing, SM: Social maturity, SDL: Self-directed learning, PSCN: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Table 4> Influencing factor on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Variables	B	SE	β	t	p	R ²	adjust R ²	F(p)
Motivation on choice of nursing	-.038	.023	-.094	-1.655	.099	.344	.328	22.505 (.000)
Major satisfaction	.179	.058	.209	3.066	.002			
Meaning on nursing	.262	.062	.274	4.238	.000			
Social maturity	.085	.042	.118	2.052	.041			
Self-directed learning	.164	.046	.211	3.555	.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사회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 주도성과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전문직 자아개념에 대한 간호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 총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92 점으로 중간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도를 살펴본 손희정[26]의 3.20, 다른 도구를 사용한 김금순과 김보미[12]의 3.3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성숙도 연구가 거의 없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연구로 확대해서 비교했을 때 김은희[27]와 권영미와 윤은자[14]의 연구에서도 일반대학생보다 낮았다는 보고로 미루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은희[27]는 임상실습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데서 그 원인을 유추하였으나 본 연구 대상자들은 전학년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김은희[27]의 주장을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사회적 성숙은 사회라는 공동체에 있으며, 이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고, 이때 형성된 인간관계는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중심적 행동과 태도를 보다 성숙하게 변화시키며 발달한다[11]. 그러나 간호대학생에게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즉 인간관계가 바탕이 되는 사회성을 함양할 기회가 많지 않음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학문을 접하면서부터 긴장감을 느끼고, 상대평가, 임상실습, 국가고시 합격이라는 과도한 학업의 부담으로 전공지식 습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27], 결국 사회적 성숙을 위해서 갖춰야 할 상호작용 능력,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전문직 사회화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

회적 성숙을 위해 바람직한 태도와 품성 및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69점이었고,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점숙[17]의 3.71과 조인영[18]의 3.64점과 유사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박안나 등[28]과 최준희와 정정희[15]의 결과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사에 비해 학습이 일상화되어 있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많고, 특히 학습량과 과제부담이 타 전공에 비해 높아 주도적 학습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전공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주도성의 하위영역에서는 미래지향성과 학습자적 신념이 가장 높았고 탐구성 영역이 가장 낮았는데, 학습자적 신념이 가장 높았던 선행연구[15,28]와 일부 유사한 결과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학습은 미래의 간호직을 위한 준비과정이고 이를 위한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 중 전공만족도와 간호직의 의미가 높다는 군이 의미가 없다는 군과 차이를 보였고, 이들 변수는 또한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전공만족도가 관련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17,18]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전공에 대한 만족은 자신의 만족평가가 기준에 부응한다는 것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가지고 학습에 대한 설계, 학습자원 수집, 학습전략 수립 및 실행, 자체 평가로 구성되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생명과 관련된 간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해야 하며, 급변하는 환자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다[18,28,29,30]. 이를 위해 간호조직의 주도로 구조화된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간호사의 학습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간호사 각자가 주도가 되어 필요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체계가 선호되어야 한다[31].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은 대학교육 과정 동안 체화(體化)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우선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직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평균은 4점 만점에 3.06점이었고, 이는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4,8,19]보다 높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미래의 간호사로서 수행할 업무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견해가 선행연구의 시점에서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더불어 자존감과 자신감도 높다는 것으로 고무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 중 연령, 학년, 학과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직 의미 정도에 따라 전문직 자아개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 학과선택동기, 전공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낸 성미혜[4]와, 학과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간호직 의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지은미 등[8]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직에 대한 흥미가 실제 간호사들의 태도와 실무를 관찰하는 것에서 영향을 받으므로[32] 이상에서처럼 학과선택동기,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분석에서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학과선택동기, 전공만족과 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간호학 선택 동기와 전공만족에 대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주요 세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사회적 성숙도와 학습관련 자기주도성과, 사회적 성숙도는 자기주도성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와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고, 사회적 성숙도가 높을수록 학습관련자기주도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있어 전공만족도($\beta=.209$)와 간호직에 대한 의미($\beta=.274$), 사회적 성숙도($\beta=.118$) 및 학습관련자기주도성($\beta=.211$)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34.4%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사회성이 전문직관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바 있는 권영미 등[1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이 전문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책임 있는 간호사로서의 전문직관 확립에 영향을 줄을 의미한다. 사회적 성숙은 주변 환경과 연관된 총괄적인 행동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갈등 상황에서 타협할 줄 알며, 타인과 조화를 도모하는 등의 역할 능력을 포함하여 이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추었을 때 동반된다[26]. 전문직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인식체계가 긍정적일 때 형성되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전문직 역할 수행에 방해요인이 된다[19].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을 위해 간호사의 적절한 역할 모델 정립과 전문직 직업관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타인과 자기 존중의 정신을 형성하게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은 전문직 간호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14,33].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대로 건전한 사회성 발달과 공동체 의식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기주도성과 전문직자아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나,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송미령 등[34]의 보고와 유사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기주도성은 전문직 자아개념의 필수적인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론 및 실습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간호대학생의 역량강화와 전문직 태도를 키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한 김영희[3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최준희 등[15]은 간호사에 있어서도 학습관련자기주도성은 간호실무수행능력과 상관성이 있는 하나의 요인이며, 간호사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신규간호사를 지도하는 프리셉터에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훈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임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을 필요로 하는 간호직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자기주도성의 함양이 중요함을 확인하게 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단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간호교육기관은 간호대학생들의 학습에서의 자기주도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형태와 전략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설명력이 유의하였으나 비교적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속한 지역과 대학을 확대할 것과 임상실습 경험 여부 혹은 실습병원의 형태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반복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숙도,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및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각 변수들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와 자기주도성은 전공만족도 및 간호직에 대한 의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사회적 성숙도와 자기주도성이 높으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도 향상되었다. 또한 전공만족도, 간호직에 대한 의미, 학과 선택동기와 사회적 성숙도 및 자기주도성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와 학습관련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올바른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성숙도 및 자기주도성과의 관계를 확립하여 간호사로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과정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두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 간호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추후 사회적 성숙도와 학습관련자기주도성이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이 연구는 2017년도 인천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REFERENCES

- [1] L. W. K. Geiger, & J. S. Davit, "Self image and job satisfaction in varied settings", *Nursing Management*, Vol 19, pp. 50-58. 1988.
- [2] D. Arthur, "The development of o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1990.
- [3] K. Y. Sohng, C. H. Noh. "Survey on relationship self concept of nurses"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 94-100, 1996.
- [4] M. H. Sung,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J.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 18, No.1, pp. 18-24. 2012.
- [5] K. R. Livesy, "Structural Empowerment And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Behaviors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 In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s", *International J.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6, pp. 1-16, 2009.
- [6]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517-526, 2016.
- [7] L. Strasen, "Self-concept:Improving the image of nursing" *J.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9. No. 1, pp. 4-5, 1989.
- [8] E. M. Ji, J. H. Lee,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2, pp. 1125-1140, 2014.
- [9] K. Y. No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sychosocial Maturity Inventory For Korean Adults", *Korean J.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24, No. 2, pp. 297-337, 2012.
- [10] M. R. Park, H. G. Kim, "The Effects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Sociality", *J. of Community Education and Counseling*, Vol. 3, No. 1, pp. 21-39. 2004.
- [11] J. H. Yeo, M. Y. Hyun, E. J. Lee, E. O. Park, J. H. Kim & H. J. Song "Psychosocial Maturity,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Undergraduate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4, No. 1, pp. 73-81, 2005.

- [12] G. S. Kim, B. M. Kim, "Convergent Influence of Ego-Resilience, Psycho-Social Maturity on Stress Coping Styles of University Students",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3, pp. 375-383, 2017.
- [13] S. W. Jung, R. I. Hwang, Y. S. Le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4, pp. 265-272, 2017.
- [14] Y. M. Kwon, E. 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3, No.3, pp. 285-292, 2007.
- [15] J. H. Choi, J. H. Jeong, "The effect of readiness to self-directed learning on nursing practice competence", *J.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7, No.1, pp.16-26. 2011.
- [16] M. Y. Kim, "Affect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3 pp. 1884-1893, 2015.
- [17] J. S. Jung,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linical competence",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18, No. 1, pp.53-61, 2012.
- [18] I. Y. Cho. "The Relationship of Self-Directednes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6, pp. 3635-3647, 2014
- [19] E. S. Lee, M. S. Park, "A Study of Convergence Relationships among Nurses' Imag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1, pp. 311-320, 2017.
- [20] M. H. Lim,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560-568, 2016.
- [21] J. I. Ki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9 pp. 6053-6060, 2015.
- [22] B. Y. Suh, S. M. Whang, "The study on development of psycho-social maturity through the college experiences " *Student Review*, Vol. 28, No, 1, pp. 1-31, 1993.
- [23] P. J. Guglielmino, L. M. Guglielmino, H. B. Long,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erformance In The Work Place: Implications For Business, Industry, And Higher Education", *J. of Higher Education*, Vol.16, No.3 pp. 130-137, 1987.
- [24] C. J. Kim, K. S. Kim, K. O. Yoo, G. H. Yoo, "A Study On Development Of Self-dri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For Primary School Teacher and Its Applications", *Korean J.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2, No. 1. pp.1-25. 1996.
- [25] W. 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Master's thesis, Kyungpook university. 2006.
- [26] H. J. Son,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of off of between the Psychosocial Maturity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27] E. H. Kim,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soci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498-505, 2016.
- [28] A. N. Park, K. H. Chung, W. G. Kim, "A study on th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fessional nursing competency", *J. of Korean Academy Nursing Administration*. Vol. 22, No. 1, 1-10, 2016.
- [29] S. J. Kang, E. J. Kim, H. J. Shin, "Convergence Study about Problem-based Learn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roblem Solving Skills, Academic Self-efficacy, Motivation toward

- Learning of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2, pp.33-41, 2016.
- [30] Y. M. Jung, “Convergenc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55-65, 2016.
- [31] B. Williams, “Self direction in a problem based learning program”,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No. 4, pp. 277-285. 2004.
- [32] P. A. Pearcey, B. E. Elliott, “Student impressions of clinical nursing”,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No. 5. pp. 382-387, 2004.
- [33] M. H. Lim, “Converged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es”, J.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6, pp. 75-84, 2017.
- [34] M. R. Song, E. M. Kim, S. J. Yu. “Aanalysis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Basic Nursing Skills”, J.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6. pp. 390-401.
- [35] Y. H. Kim, “Relationship of self efficacy, self-directedness and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J. of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6, No. 3, pp.307-315, 2009.

저자소개

최 동 원(Dongwon Choi)

[정회원]



- 199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2014년 2월 : 수원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간호교육, 노인간호학, 만성질환환자간호